

관광도시 삿포르, 화장실 문화에 눈뜨기 시작하다



글 아미사타 도오루 山下 穂수필가/일본화장실협회 회원



▲한일연합 팀의 춤추는 모습[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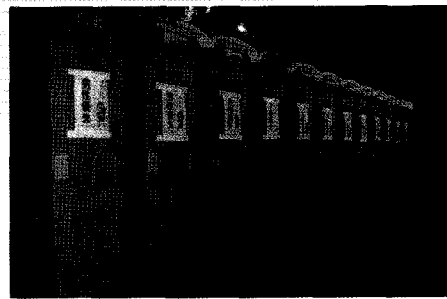
한일연합 팀이 출장한 요사코이 소란축제 (YOSAKOI saran)와 화장실

지난 6월에 삿포르에서 요사코이 소란축제(제10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408팀, 41,000명의 춤꾼들이 모여, 시내에 있는 32곳의 대회장과 메인 회장인 오오도리 공원에서 활기차고 화려한 소란절의 춤을 펼쳤습니다. 관객동원 수는 처음으로 200만 명 대를 돌파하여 약 201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일연합 팀(약 100명)이 참가하여, 6월 9일과 10일에 오오도리 공원 8번지에 위치한 대회장의 무대에서 대단히 화려한 춤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영사관 정 총영사의 권고로

영사관 직원, 유학생, 그리고 삿포르시 국제교류원 등의 한국인과 「삿포르·한국을 아는 모임」(대표: 도이 쥬로우) 멤버들이 연합팀을 결성한 것으로 팀의 이름은「소란코스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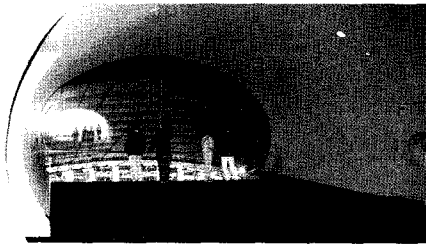
반년에 걸쳐 맹연습을 한 결과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끝까지 훌륭하게 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사진1) 그런데 메인 회장인 오오도리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5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무회나 관객을 위하여 오오도리 공원 두 개소에 모두 24개의 부스를 갖춘 가설 화장실이 설치되었습니다.(사진2)비록 가설 화장실의 부스 내부는 협소하고 변기가 일본식 외변기라고는 하지만, 가설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나 화장실용 휴지, 휴지통도 구비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오오도리공원 회장에 설치된 가설화장실[사진2]

요사코이 소란(YOSAKOI Saran)축제는 전국 각지의 직장이나 학교 지역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손에 딸랑이를 들고 여러가지 의상을 입고 시내 여러 곳에서 일본인의 열정과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박력만점의 춤을 전개한다.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자원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화장실안내를 하거나, 청소를 하고 있어 무회들이나 관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삿포로 돔 (공중전망대)(사진3)

삿포로 돔의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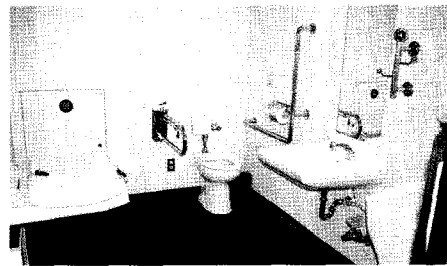
2002년에 개최되는 FIFA 월드컵 축구까지는 앞으로 30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일본국내의 10군데 경기장도 거의 완성되었으며, 6월 2일에는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삿포로 돔이 완성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하라히로시씨가 설계 감수한 것으로, 건설비 약 530억 엔의 현대적 건축기술이 집적된 경기장입니다.

총 관객석수는 41,000석이며 이 가운데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객석도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사용한 본격적인 돔으로써 야구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중엘리베이터와

공중전망대도 있어서 시민들의 견학투어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3)삿포로 돔에는 84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그 가운데 24개소는 장애인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내부 벽은 어느 것이나 검은색으로, 세련되고 안정된 분위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기수는 소변기가 324기, 대변기 398기, (그 중 여자용 247기, 남자용 151기)입니다. 또한 양변기는 223기, 일본식 양변기는 175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도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공항문, 인공방광 장착자인 오스토메이트를 위한 운수사워기의 설비도 2개소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진4, 사진5). 그렇지만 관객이 휴식시간에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삿포로 돔의 화장실 내부(사진4)



◀오스토메이트 우선화장실의 표시(사진6)

오스토메이트(Ostomate)는 인공 방광 및 항문을 장착한 환자 등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을 말하며 일본에 스토매(인공 항문이나 인공방광)를 장착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삿포로 시청의 오스토메이트 우선화장실

2002년 10월에는 제 6회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장애인 인터내셔널)세계회의의 삿포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삿포로시에서는 이 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등을 위한「베리어후리」대책으로서 논스텝 버스의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외에도 휠체어 사용자들이 시내에서 불편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시내전역에 있는 베리어가 많은 보도의 개수·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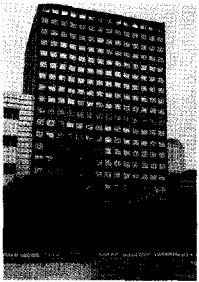
한편 2000년 4월에 삿포로시내의 공공시설물의 정비에 관한「삿포로시 복지의 마치츠클리(마치츠클리란 주민주체의 새로운 지역만들기, 커뮤니티형성운동, 즉 도시의 지역사회(町)재생운동을 말함)조례시행규칙」이 시행되었으며, 공공시설물인 화장실의 본격적인 “베리어후리”대책도 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시청 3층에 있는 직원(남녀)화장실을 부수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신설하였습니다(사진6, 사진7). 장애복지과 과장인 아마자끼(山崎)씨의 이야기로는 시청 청사의 1층에도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복지과가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의 내방이 많으므로 「장애인용 화장실」을 「오스토메이트 우선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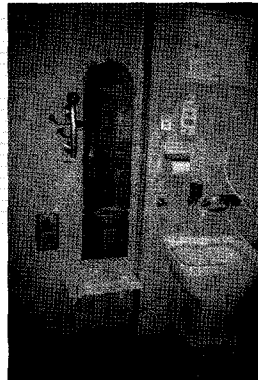
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출입구에는 오스토메이트용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8).

이제부터 오스토메이트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덧붙여서 「삿포로시 복지의 마치츠클리 조례시행규칙」에는 오스토메이트우선 화장실에 관하여 「오스토메이트(인공항문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급유설비, 세정대, 세면기등을 설치하고 심볼마크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美小空**



▲삿포로시청 전경(사진6)



▲오스토메이트우선 화장실 내부(샤워식 파우치 세정기, 거울, 선반, 후크, 휴지통이 갖추어져 있다.)(사진7)



▲오스토메이트우선 화장실 마크(사진8)